



### 수상자

- 최우수상 : 글로벌철도융합학과 김○형 외 4명
- 우수상 : 철도전기시스템학과 권○원 외 12명
- 장려상 : 뷰티디자인경영학과 구○경 외 35명

학생경력개발센터에서는 재학생 3, 4 학년 대상으로 SCA 자기소개서 경진대회를 진행하였다. 이 경진대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 작성을 통한 취업 동기부여를 주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유도 및 취업 활성화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3, 4 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실행하게 되었다. 총 203명 학생이 참여하였고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 조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매우 만족 51.6%, 만족 41.95% 라는 결과가 나왔다. 2021년 1 학기에도 진행 할 예정이니 학생들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.

### 콘텐츠 기획·제작 교육을 통한 1인 크리에이터 육성

## 우송 반응형 UI/UX 아카데미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교육생 모집

지난 12.11 '2020 유튜브 미디어 크리에이터 과정' 접수를 마감을 하였다. 총 30명의 학생이 신청하였으며, 12.21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2021.1.15까지 총 4주간(100시간)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. '2020 유튜브 미디어 크리에이터 과정'은 1인 방송 산업 동향 및 사례분석을 시작으로 기본 이론 교육부터 실제 제작을 위한 제작 프로세스를 습득할 뿐만 아니라 조별로 작품을 제작하여 시사회까지 할 예정이다.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취업 분야의 개척을 통해 학생 개인의 진로 탐색의 계기가 될 것이다.

## 2020년도 기업체 및 졸업생 만족도 조사

2020년 기업체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. 2020.11월부터 12월 중까지의 기간을 걸쳐 유인물 배포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, 설문조사 기간 중 29개 기업체와 546명의 졸업생이 응답하였다. 2020년 기업체 만족도 조사 설문 응답건수는 총 29개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 평균은 83.7점을 기록했다. 또한 졸업생 만족도 조사 설문 응답건수는 총 546명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 평균은 77.6점을 기록했다.



다가오는 2021.01.18 ~ 2021.01.20에 학생경력개발센터에서는 재학생 2, 3, 4 학년 대상으로 NCS 직무역량강화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. 학생들에게 공기업 및 대기업 직무능력평가를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시행할 예정이다.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.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NCS 모의고사, 인성검사를 교육비 본교지원을 통해서 무료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이 종료 후에도 1달 동안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다. 현재 학생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2021.01.07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. 많은 학생들의 지원을 바란다.

## 2020년 2차 우수지수 마일리지 등록 마감

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'2020년 2차 우수지수 마일리지 등록 (2020.07.01 ~ 12.31)'이 12월31일로 마감되었습니다. 이와 관련한 우수지수 우수자 시상식은 2021-1학기 개강전에 할 예정입니다.

### 취업 후기

[Click](#)

- 콘래드서울
- 우송대학교 외식산업경영학과 임○한

🌟 <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> 🌟

### 추천채용/채용공고

[Click](#)

- [꿈나무어린이집] 보육교사 채용 (~01/31)
- [송도외과] 수술실 간호사, 간호조무사 채용 (~채용시까지)
- [(주)진광고]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 채용 (~채용시까지)
- [(주)태거플랜트] 건축설비 및 소방기술자 채용 (~채용시까지)

### 취업뉴스

[Click](#)

- 코로나가 출퇴근시간도 바꿨다.. 대기업 절반, 올해 '자율출퇴근제' 도입
- 2021 신입직 희망연봉 '평균 3200만원'
- 기업 42% 올해 '인력부족' 겪어.. 코로나19 영향 커

올해는 기업의 경영 환경이 그 어느때보다 힘든 해였다. 이는 기업의 인력관리에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.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26개사를 대상으로, '2020년 채용 결산'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, 42%가 올해 인력부족을 겪었다고 28일 밝혔다...